

군산시 청년센터 운영방향 공유

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소통·네트워크 환경 조성 등 제안

군산시는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둔 군산시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8일 시청 상형실에서 열린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 및 청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센터의 운영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복합시설로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 운영과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지원과 창업생태계 조성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면접 등의 방법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조사를 통해 센터의 컨셉트와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복합센터의 공간 구성, 운영주체 등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청년센터는 '함께하는 청년·꿈을 실현하는 청년'을 비전으로 개방성, 자율성, 역동성을 핵심 컨셉트로 소통, 참여, 연대, 공유, 경험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안을 정했다.

청년센터의 역할은 ▲청년소통 및 네트워크 환경 조성 ▲청년활동 및 취미·여가환경 조성 ▲청년취업역량 개발 환경 조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소통 및 사회참여형 ▲청년가족 및 복지형 ▲청년취업 지원형 ▲청년활동 및 취미·여가형 등 4대 유형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기업가 정신, 도전정신, 지속가능성, 협업의 가치를 주요 가치로 삼았으며, 주요 역할은 ▲창업친화적인 환경조성 ▲지역혁신기반 지속가능한 창업 ▲창업가형 인재육성 환경조성이다.

창업지원센터의 추진 프로그램은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참여형, 창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형, 실천창업 준비과정인



군산시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방안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실전형,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와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형 등 4개 유형을 제안했다.

청년활동 지원과 창업지원의 복합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센터의 특성상 공간구성도 3개 층으로 기능에 따라 구성하여 4차산업 교육실과 세미나실이 있는 교육층과 공유주방, 상담실 등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유층, 코워킹스페이스, 장비실이 있는 창작지원층으로 구성해 센터 간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도

전적인 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분위기를 타파해 나가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실 있게 운영되어 청년들의 희망과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4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비를 확보해 장비동 4층지 군산상공회의소 신축회관의 3~5층, 1,208㎡(360여명) 규모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겨울나기 사회공헌활동

군장에너지 연탄·등유 지원 사업 진행

군장에너지(주)가 동절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군장에너지(주) 직원 일동은 소룡동과 미성동 24세대에 연탄 및 등유(600만원 상당)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람의 연탄을 배달하며 직접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겨울나기 지원 사업은 군장에너지(주)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활동인 '사랑의 1004운동(계좌당 1,004원씩 기부)'을 통

해 모아진 성금과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금한 금액에 상응하는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여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군장에너지(주) 박준영 대표는 "추운 겨울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문정만 소룡동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장에너지(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의 나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국방시설본부, 상생협력 협약 체결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난 28일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과 관·군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태용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7.6ha에 달하는 대야면 복덕리 일원에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인 실습·실증재배 포장, 귀농귀촌 체험·교육 및 숙소, 치유 숲(공원) 테마공원 조성 및 동물 보호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부지인 前 106연대 본부 부지는 집단화·규모화 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기획하고 농업 관련 연계사업을 확대하는데 최적지로, 시에서는 지난 9월 국방시설본

부 전라시설단과 국방부 유류 행정 재산 매입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관계자는 "관·군이 하나가 되어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사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이 관·군 상생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5억을 확보해 부지 매입과 관련,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과 국방부 유류 행정재산 매입 절차에 돌입한 이후 공유재산 심의회 및 예산확보 등 매입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내년 상반기 관련 연계사업을 확대하는데 최적으로, 시에서는 지난 9월 국방시설본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한·태 교류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는 LINC+사업단 주관으로 태국 수쿰나바판대학교, 나외민대학교, 남원제일고등학교, 원광정보예술포고등학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태 글로벌 교류회'를 개최했다.

최근 원광대 6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류회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한국과 태국 청소년들 간에 활발한 경제교류의 장을 열고,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양국 학교 관계자와 학생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원광대 LINC+사업단 김성연 부단장은 "교류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3D프린팅을 체험하고, 양국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LINC+사업단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우수한 청소년들이 글로벌 마인드 확장하고, 대학과 중·고교 간 창업 문화의 수직적 확산 및 글로벌화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양국 청소년들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과 태국 간 우호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익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재정 인센티브 1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지출 확대 추진 필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 시기, 추경 규모, 일자리 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7개 지표를 활용해 재원 규모 등이 유사한 동종단체별로 구분 평가한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서 익산시는 추가경정 예산 신속 편성,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 우수사례 등 주요 부문에서 동종 단체 평균보다 우수한 수치를 기록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19년도도 일자리 확대 등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성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추경 편

성 및 재정확대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과 지방의 정책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방재정 확대뿐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주적인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고, 질적·양적 면에서 주민생활의 개선과 미래를 위한 신규 투자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고용·산업위기 대응 최우수 지자체 선정

군산시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일자리수석 주재 회의에서 최근 고용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지시를 통해 올해 처음 실시된 것

로 추경시기 및 규모와 일자리 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상황 악화에 얼마나 긴급히 대응했는가와 재정 및 일자리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예산증가율(10%↑), 3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한 위기 신속 대응 및 2018년도 예산규모 확대(10%↑)와 더불어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강임준 시장의 위기 극복 및 지

역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목적예비비 확보 노력과 희망근로 지원 사업 등 고용안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높게 평가받았다.

강임준 시장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에"이라며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할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김봉춘 소방서장 정년퇴임식

익산소방서 김봉춘 서장이 정년 퇴임했다. "35년 성상을 마친 김봉춘 익산소방서장의 정년퇴임식이 진행됐다"고 28일 전했다.

1982년 소방에 입문, 서울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중앙119조본부,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고창소방서장을 거쳐 익산시민의 안전지킴이로 취임했다.

김 서장은 "35년의 소방공무원 생활

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변화를 요구받는 여러 시간을 겪으며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인정받고, 119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주희 소방행정과장은 "빛나는 별과 같은 분이셨다. 소방을 위해 헌신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후배들이 뜻을 이어 소방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키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